

대학교육과 벤처사업

윤영선 | (주)넷핑정보통신 이사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달로 기존의 정부, 혹은 몇몇 대기업의 주도로 운영되던 경제질서는 밑으로부터의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신속한 정보 수집력과 창의력을 갖춘 젊은 모험 사업가들의 새로운 사업 영역으로의 도전은 국경과 학력, 성의 틀을 넘어서 산업혁명을 능가하는 새로운 폭발적 혁명의 시기가 도래하고 있음을 예고한다. 따라서 대학도 구질서의 구성원으로 합격점을 받고자 목매던 고사 준비나 취직 준비로 어쩔수 없이 변형되었던 관습을 정비하고 새로운 시대의 선두에 설 수 있는 인물을 배출하는 현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전공의 벽이 핸디캡이 될 수 있다

대부분 대학에 입학할 때 전공을 정하고 들어가는 현행 학사제도 하에서는 학생들은 폭넓은 학문의 탐색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한 채 전공학점의 이수에 대학생활의 대부분을 할애하게 되어, 4년 후 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인문적 소양이나 철학을 갖추지 못한 채 하나의 기능인으로서 사회의 격류에 수동적으로 흡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기본적으로

로 한국은 고등학교 교육과 대학교육에서 이과나 문과의 구분, 또 대학입시에서의 문·이과 구분은 문과생에게는 수리적 또는 기술적인 분야에 대한 핸디캡을, 이과생에게는 많은 실험과 과제에 쫓겨 문과 영역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켜보지도 못하고 일개 테크니션에 머물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워준다. 실제로 필자도 대학시절 전공필수 과목과 시간이 겹치는 타 학과의 과목을 수강할 수가 없어 안타까웠던 적이 많았으며, 정치학도인 나로서는 이·공계열의 강의는 기본적으로 전공자와 일률적으로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불가능하고 판단하여 감히 도전해보지 못했던 아쉬움도 있다. 통계학 등은 경영대에도 과목이 개설되었지만 전공학점 이수가 최우선인지라 기술적으로 쉽지 않았었고, 그 후에 미국에서 공공정책대학원을 다닐 때 각종 학문적 배경을 가진 대학원생들로 교육하기 위해 배려한 기초통계학부터 경제학 등을 수강하고 이공계 전공출신자와 함께 문·이과 혼합적 특성을 가진 여러 과목들을 수강할 수 있었다. 반면 이공계 학부를 나온 학생들은 정치학이나 경제학 등의 과목을 대학원이나 학부에 가서 수강하고, 바로 석사과정의 학과를 수강하곤 하는 것을 보고 새삼 미국 대학의 융통성과 기회제공의 우수성에 감탄하곤 했다. 미국의

대학원에는 학부의 전공과 그다지 연관이 없는 듯싶은 사람도 180도 방향을 전환하여 제 2의 인생에 도전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뮤지컬 배우가 MBA과정에 입학한다든지 공대출신자가 재정학(finance) 등을 공부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었다. 이는 대학시절에 공부했던 전공에만 치우치지 않고 계속해서 강의를 들어왔고, 그것이 기반이 되어 언제든지 인생의 발전이나 변화를 원할 때 기회를 주고자 하는 대학과 사회의 배려와 장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한국의 대학에서 채택하고 있는 부전공제도도 한가지 전공의 추가만 가능하고, 학점 이수 또한 조건이 만만치 않아 많은 학생들이 부전공을 선택하였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많은 걸로 알고 있다. 이 또한 전공자만을 위해 짜여진 학사일정 때문이다.

벤처사업을 하기 위해서 출발기에는 뛰어난 기술력과 참신한 아이디어가 필요하지만, 곧 시장의 흐름을 경제적으로 읽어낼 수 있는 능력과 무엇보다 끊임없이 요구되는 개발비를 조달하고, 시장에서는 아이템을 마케팅해 나가는 능력, 회사 설립과 특허, 지적재산권, 시장공개에 따르는 법률적인 측면에 대한 기본 지식이 필수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전공의 벽을 뛰어넘는 학제간 교육은 21세기를 살아가는 대학인에게 필요불가결한 요소이다.

인문적 상상력이 부족하다

문·이과를 막론하고 위에서 말한 전공이라는 고답적 틀에 얽매이다 보니 동서고금의 고전들을 접해보지 못하고 단지 전공서 몇 권만을 습득하고 나서 대학 졸업자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시대를 리드하는 상상력 넘치는 창조와 모험은 기대하기조차 어렵다. 현실적으로 게임을 개발한다고 해도 고전문학의 배경을 차용하는 경우가 많고, 기술 혁신과 함께 양질의 문화 콘텐츠 제공이

각광을 받는 시기가 도래하고 있으니 학과를 소홀히 하거나 혹은 대학을 포기하고 미세한 기술 개발에만 몰두하는 기술인들이 벤처사업을 하기에는 역부족인 시대가 오는 것이다.

영재를 육성한다

그렇다면 대학은 대학을 도외시 하는 많은 벤처기술의 영재를 끌어 들여 명실공히 시야가 넓은 시대의 파이어니어로 교육시켜야 하는 책무를 갖게 된다. 또 특수재능을 인정받아 대학에 입학한 영재들에게 맞지않는 대학 교과과정에 좌절하지 않고 그들의 아이디어와 조급한 사업실현에 대한 욕망을 더 폭넓게 다듬고, 필요한 정보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장을 대학이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리포트보다는 논문과 프로젝트를

대학 강의에서 교수가 채택한 몇 권의 텍스트만을 읽고서 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경쟁력의 저 뒤편에 뒤떨어지는 것이다. 학부과정에서부터 배 과목마다 엄청난 양의 독서가 있어야 논문을 쓸 수 있고,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오늘날과 같이 대학 교육이 대중화한 시대에 대학을 갓 졸업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옛날 명문 고등학교 출신의 교양보다 못하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다. 좋은 대학을 나오면 취직이 잘된다는 식의 사고방식은 이제 별로 유효하지 않다. 일을 시켜보면 학력의 차이가 실무능력과의 차이와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음을 파악하게 된다. 다만 경영에서는 재무적인 마케팅 지식과 경험이, 새로운 아이디어의 창출에서는 상상력의 유무가 능력의 차

이를 대별하는 것이다.

이제 대학에서는 리포트라는 과제를 낼 것이 아니라 모두 논문으로 제출하게 하여 인터넷에서 자료나 참고문헌을 짜깁기하던 수준을 과감히 넘어서야 한다. 지적 재산에 대한 적절한 윤리의식과 창의성에 대한 존중은 21세기의 대학에서 중시해서 가르쳐야 될 덕목이다. 라이선스나 졸업장으로 무언가 보장되는 시기는 소멸하고 있다. 대학에서는 올바른 관점과 논지전개를 훈련시키고 문제를 찾아 해결해나가는 능력을 함양시켜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학부생들의 논문 작성뿐 아니라 교수 지도하의 각종 프로젝트도 많을수록 좋을 것이다. 일방적인 지식 전달의 수업만을 받아 수동적인 학습태도에 익숙해진 학생들을 대학에서 자극하여 탈바꿈시켜야 한다. 벤처사업을 경영하면서 무수히 쓰게 되는 사업계획서와 자본 조달을 위한 사업설명회, 마케팅 등에서 평면적 사고를 가진 사람은 대중의 변화무쌍한 욕구를 집어내지 못하고 좌초할 것이기 때문이다.


모험을 장려한다

최근 몇몇 대학에서 학내 벤처동아리와 벤처사업을 장려·지원한다고 한다. 사회경험이 없는 학생들이 아이디어 하나로 대학의 시설과 정보를 이용하여 위험에 대한 부담 없이 모험을 시도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기술 개발의 측면 뿐 아니라 법적·재정적으로 대학의 인력으로부터 자문과 지도가 있다면 맨 땅에서 시작하는 벤처보다는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한번에 성공하는 경우는 흔치 않으니 학교에서부터 무수한 시도를 해보는 것은 좋은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벤처기업과 연계된 현장교육도 중요하다. 이런 형식의 경험은 지금까지 이공계 대학에서 대학원 학생들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는데 전공이나 나이에 제한이 없는 폭

넓은 시도가 필요하다. 기술은 도구이고 기술에 담을 내용은 다양한 학생들이 참가할수록 새로운 내용을 실험해볼 수 있을 것이다. 사학전공자, 음악전공자, 디자인 전공자도 기술과 결합하여 무한한 창의력을 시도해볼 수 있을 것이며, 이제 대학원에 제한된 기회는 늦은 감이 있다.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

대학을 졸업하고 시간이 꽤 흐른 뒤 재교육의 필요를 절감한 사람들이 흔히 가는 곳은 순위은 학원이다. 그러나 어릴 때부터 받아온 수동적인 교육의 연장이 계속될 뿐이다. 대학은 고교 졸업생만을 교육할 것이 아니라 학위와 관계 없는 신기술과 지식을 성인에게 재교육시키고 아이디어의 बैं크가 되어 새로운 벤처를 배태하는 장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벤처는 몇몇 겁 없는 천재의 행위라기 보다 조직적으로 지원, 조성되어야 마땅할 새시대 대학문화이다. 우리의 대학이 시대의 숨막히는 변화를 지켜보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변화를 잉태하고 이의 흐름을 올바르게 잡아줄 수 있는 넓은 마당이 되길 바란다. 

윤영선

서울대에서 국제정치학학부, 대학원을 마치고, 89년 미국 하버드 대학 케네디 행정대학원에서 공공정책학(외국자본의 한국투자에 따르는 정치 리스크) 석사를 받고 씨티뱅크 서울 금융분석팀 차장, KBS 보도국 세계뉴스팀 등에서 근무했다. 현재는 (주)넷평정보통신 이사와 한겨레 리빙 문화부 객원기자를 역임하고 있다.